



체육시민연대 뉴스레터

대한민국 스포츠의 근본적인 변화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체육시민연대와 함께 동참해주세요

2026년 제 07호



2022년 4월, 하늘에 별이 된 김포FC 유소년 축구 U-18팀 정우림 선수의 명복을 빕니다
우리는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01

‘여서정 보류’에 급했나...여흥철, 국가대표 평가점수 “사후 조작” 정황

일요신문 이동섭 기자

02

역대급 내부총질에 만신창이...자이언츠 야구단이 잃은 5가지

일간스포츠 안희수 기자

03

선수도, 시설도 부족...대전 동계체육 구조적 한계 드러나

뉴스1 김기태 기자

04

“DDP 해체하고 ‘서울 돐’ 건설해야”...동대문 문화·체육 기능 복원 주장 제기

한국생활체육뉴스 김성진 기자

05

스포츠 최고 법정마저 "우크라이나 추모, 올림픽에선 안돼"

뉴스1 윤주영 기자



01

‘여서정 보류’에 급했나…여홍철, 국가대표 평가점수 “사후 조작” 정황

일요신문 이동섭 기자

2026.02.09.15:49:41

사진=대한체조협회

| 체조협회 경기력향상위 녹취록 입수…여 전무 “메달 가능성 등 임기응변으로 수치화해 제출하자”

대한체조협회 경기력향상위원회가 국가대표 선발전 평가점수표를 급조 및 조작한 정황이 포착됐다. 여서정을 비롯한 남녀 기계체조 국가대표 6명에 대해 대한체육회가 ‘승인 보류’를 결정한 후였다. 회의 녹취록 등에 따르면, 여홍철 대한체조협회 전무이사가 ‘임기응변’을 강조하며 평가점수표 조작을 주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대로 뽑았습니다라고 (하면) 그냥 자기(대한체육회)들은 이것(총괄 평가점수표)만 보면 ‘그런가보다’ 하고 그냥 넘겨줄 수 있는 거라고요…(중략) 아니, 이것은 지금 임기응변으로 점수를 줘서 설정해서 지금 제출하자는 거예요. 지금…(중략) 이것은 그냥 임기응변으로 그냥 우리가 수치화시켜서 제출하자는 것이 지 이결(규정으로) 하자는 건 아니예요.”

-2025년 5월 23일 경남 마산실내체육관, 대한체조협회 경기력향상위원회 여홍철 전무이사 발언 요약

‘체조 레전드’ 여홍철 대한체조협회 전무는 딸 여서정이 기계체조 국가대표로 선발되는 과정서 결재권을 행사하며 이해충돌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여홍철 전무는 국가대표 선발 세부기준 변경과 국가대표 선발 등 주요 행정절차에서 결정권을 행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아빠찬스 논란’으로 비화했다. 감사원과 국민권익위원회 등은 해당 사안에 대한 조사에 돌입한 상태다.

2025년 3월 29일 대한체조협회 경기력향상위원회는 여홍철 전무가 참석한 상태로 회의를 열어 국가대표 선발 세부기준 변경을 결정했다. 2024년 9월 폐지된 랭킹포인트 제도를 다시 도입함과 동시에 ‘메달 획득 가능성’을 국가대표 선발에 반영하는 방안이 새로운 기준에 반영됐다. 그 결과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30명 중 29위를 한 여서정이 국가대표로 선발될 수 있었다(관련기사 [단독] 아빠가 관여했나? ‘체조 레전드’ 여홍철 이해충돌 논란).



01

‘체조 레전드’ 여홍철 대한체조협회 전무는 딸 여서정이 기계체조 국가대표로 선발되는 과정서 결재권을 행사하며 이해충돌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여홍철 전무는 국가대표 선발 세부기준 변경과 국가대표 선발 등 주요 행정절차에서 결정권을 행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아빠찬스 논란’으로 비화했다. 감사원과 국민권익위원회 등은 해당 사안에 대한 조사에 돌입한 상태다.

2025년 3월 29일 대한체조협회 경기력향상위원회는 여홍철 전무가 참석한 상태로 회의를 열어 국가대표 선발 세부기준 변경을 결정했다. 2024년 9월 폐지된 랭킹포인트 제도를 다시 도입함과 동시에 ‘메달 획득 가능성’을 국가대표 선발에 반영하는 방안이 새로운 기준에 반영됐다. 그 결과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30명 중 29위를 한 여서정이 국가대표로 선발될 수 있었다(관련기사 [단독] 아빠가 관여했나? ‘체조 레전드’ 여홍철 이해충돌 논란).

기계체조 국가대표 선발전은 2025년 4월 25일과 26일 이틀에 걸쳐 열렸다. 4월 27일 대한체조협회는 제2차 경기력향상위원회를 열어 여서정이 포함된 남녀 기계체조 대표선수 선발 명단을 결의했다. 이날 회의엔 여홍철 전무가 참석하지 않았다.

대한체육회는 대한체조협회가 결의한 국가대표 명단에 대한 승인을 보류했다. 랭킹포인트와 메달 획득 가능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국가대표로 선발된 남녀 선수 6명(남3, 여3)에 대한 승인이 보류됐다. 여서정 역시 승인 보류 대상이었다.

2025년 5월 14일 대한체육회는 공문을 통해 ‘승인 보류 선수에 대한 객관적 선발 근거 자료(선발 기준 충족을 입증하는 자료)’와 ‘국가대표 선수 선발 이의신청 제도 운영 자료’에 대한 보완을 요청했다. 대한체육회에서도 대한체조협회 국가대표 선발 기준 객관성을 문제삼은 것으로 풀이된다.

대한체조협회는 경기력향상위원회를 다시 소집했다.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실이 대한체육회와 대한체조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등에 따르면, 2025년 5월 23일 경남 마산실내체육관에서 대한체조협회 4차 경기력향상위원회 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 심의사항 제4호는 ‘2025년도 여자 기계체조 국가대표 선수 평가의 건’이었다. 심의 사유는 대한체육회 보완자료 요청이었다.



01

심의사항 추진 방침으로는 “성적순 6명을 제외한 랭킹포인트 획득 선수를 대상으로 위원회 평가 실시를 통한 객관적 데이터 산출”이 명시됐다. 평가 범주는 랭킹포인트, 메달 가능성, 국가대표 지도자 의견 반영 평가였다. 랭킹포인트 50점, 메달 가능성 30점, 지도자 의견 20점을 합산해 총점 100점을 매기는 방식으로 선수를 선발하는 기본안을 두고 회의가 열렸다.

대한체조협회 경기력향상위원회는 평가 점수를 랭킹포인트 40점, 메달 가능성 40점, 국가대표 지도자 의견 20점을 수정 반영한 평가점수를 (대한체육회에) 제출하기로 결의했다. 메달 가능성과 지도자 의견 평가항목의 경우 스타트 점수 등을 경기력향상위원회에서 결정해 평가하기로 결의했다.

체조계 한 관계자는 “메달 가능성이나 국가대표 지도자 의견은 여전히 추상적인 기준인데, 수치화한 점수만 따로 적용해 객관성을 확보하겠다는 발상이었다”면서 “메달 가능성과 지도자 의견 점수가 어떻게 매겨지는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했다.



2025년도 여자 기계체조 국가대표 선발전

[총괄 평가점수표]



2025. 5. 23(금)

No	성명	소속	랭킹 포인트 (40점)	메달가능성 (40점)	지도자 의견 (20점)	총점 (100점)	비고
1	여서경	제천시청	40.00	35.71	20	95.71	
2			30.80	35.86	20	86.66	
3			16.00	12.57	4	32.57	
4	B선수	선발전 8위	10.80	11.71	6	28.51	
5			6.04	7.86	6	19.90	
6			2.84	8.43	3	14.27	
7			2.40	13.29	6	21.69	
8			2.20	10.71	6	18.91	
9			1.40	7.57	4	12.97	
10			1.20	5.43	4	10.63	
11	A선수	선발전 7위	0.88	29.14	17	47.02	
12			0.40	9.57	6	15.97	
13			0.32	9.00	5	14.32	
14			0.12	20.00	6	26.12	
15			0.04	7.86	4	11.90	
16			0.04	9.71	6	15.75	
계	16명						

*메달가능성 점수: 경기력향상위원회 위원 평가점수

*지도자의견 점수: 국가대표 감독 평가점수

진중오 국민의힘 의원실이 대한체조협회로부터 제공받은 2025년도 여자 기계체조 국가대표 선발전 총괄 평가점수표.

이 점수표는 국가대표 선발 명단이 결정된 후에 작성된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진중오 의원실 제공



01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실이 대한체조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여자 기계체조 총괄 평가점수표’에 따르면, 여서정은 랭킹포인트(40점)와 지도자 의견(20점)에서 만점을 받았다. 여서정은 ‘메달 가능성’ 점수에서도 35.71점을 받았다. 총점 95.71점으로 심의 대상 선수 16명 중 1위를 기록했다.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실이 대한체조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제4차 경기력향상위원회 회의 녹취록’에 따르면 여홍철 전무는 이날 선수 선발과 관련해 의견을 적극 개진한 것으로 파악됐다.

여홍철 전무는 ‘메달 가능성’ 점수 항목에 대해 ‘스타트 점수(기술 기본 점수)’를 기준으로 하자고 제안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여홍철 전무는 “소년체전 끝나고 부회장님이랑 선수촌에 들어가서 (국가대표 선발) 승인해준 다음부터 우리가 보완을 해서 (선발 기준) 객관화 시키겠다(고 얘기하겠다)”면서 “아까 스타트 점수나 자료 좀 만들어 달라”고 했다. 선발전 이후 선수 평가 관련 기준을 마련한 상황이다.

이 회의에서 여홍철 전무는 “거기(대한체육회)에서도 수치화된 걸 못 쓰니까 수치화된 것만 일단 주면 통과시켜주겠다는 것”이라면서 “50, 30, 20(평가 범주) 이대로라도 집어 넣어가지고 ‘이대로 뽑았습니다’라고 (하면) 그냥 자기(대한체육회)들은 이것(총괄 평가점수표)만 보면 ‘그런가보다’ 하고 넘겨줄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기력향상위원장이 점수 평가 방식에 대해 묻자 여홍철 전무는 “아니, 이것은 지금 임기 응변으로 점수를 줘서 설정해서 지금 제출하자는 것이다. 지금”이라며 “지금 (남녀 각) 3명, 6명 때문에 하는 거니까 지금 그렇게 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여홍철 전무는 “이게 규정은 아니다”라면서도 “이대로 점수화해서 선수들에다 (대한)체육회에다 보내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여홍철 전무는 “자기(대한체육회)들도 ‘뭐 이런 식으로 뽑았구나’ 하면 ‘오케이 들어와’ 이걸 지금 하기 위해서 임기응변으로 지금 우리가 만든 것”이라고 덧붙였다.



01

경기력향상위원장이 재차 “점수를 어떻게든 부여해야 되지 않느냐”고 묻자 여홍철 전무는 이렇게 답했다.

“그만해. 내가, 제가 정리 결정할게요. 일단 이 지금 평가표 랭킹포인트하고 메달 가능성 있잖아요. 이걸 점수를 50, 30, 20으로 할건지. 이대로 지금 우리는 넣을 거예요. 그냥 넣을 건데, 이 점수표 점수를 50, 30, 20으로 할 건지 아니면 40, 20, 20으로 할 건지 그걸 좀 논의해 주세요.”

여홍철 전무는 말을 이어갔다.

“점수는 이번만 하는 거고, 이것만 우리가 임기응변만 하는 거지 이걸(규정으로) 하자는 건 아니에요. (중략) 지금 남자도 그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그냥 임기응변으로 우리가 수치화시켜서 제출하자는 것이지 이걸(규정으로) 하자는 건 아니에요. 다음에 선발하는 것은 우리가 좀 객관화를 시켜가지고 하는 거니까 이거(총괄 평가점수표) 외에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홍철 전무이사

아니 이것은 이것은 지금 임기응변으로 지금 점수를 줘서 설정해서 지금 제출하자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것은 다음에 선발전 할 때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런 식으로 해도 되고 이 밑에 스타트도 해도 되고 이것은 미리 지금 3명 6명 때문에 하는 거니까 지금 그렇게 하자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이게 규정은 아니에요. 우리가 규정 아니고 이대로 지금 점수화 해서 선수들에다 체육회에다 보내겠다는 거예요.

이게 그대로 자기들도 뭐 이런 식으로 뽑았구나 하면 오케이 들어와 이걸 지금 하기 위해서 임기응변으로 지금 우리가 만든 거라는 거예요.

대한체조협회 제4차 경기력향상위원회 녹취록 중 일부 발췌. 사진=진종오 의원실 제공

회의 말미에 여홍철 전무는 “체육회 일 처리가 갑자기 막 생각나서 자기들 편하자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니까 화가 나서 제가 언성이 좀 높아졌다”면서 “본인(대한체육회)들도 빨리 넣어주고 싶은데 그게 수치화 객관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자기들도 불안한 것”이라고 했다.



01

여홍철 전무는 “감사 들어오면 이걸 어떻게 평가를 할 것이냐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이라면서 “우리가 50점이 됐던, 40점이 됐던, 30점이 됐던 수치만 넣어주면 자기(대한체육회)들도 ‘이렇게 뽑았습니까’ 하고 (국가대표 선발 선수를 선수촌에) 넣어준다는 말”이라고 했다.

여홍철 전무는 “경기력향상위원장처럼 나도 답답하다 솔직히”라면서 “종목마다 특성이 있는데 왜 그걸 가지고 이랬다저랬다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고 했다. 그러자 대한체조협회 C 부회장은 “입촌자를 빼고 나머지 선수들을 대상으로 점수를 내면 어느 정도 수치가 나올 것 같다”고 했다.

여홍철 전무는 “(점수를) 해서 주면 빨리 입촌시키자”면서 “저희가 부회장님하고 (진천)선수촌장님하고 좀 가서 이야기 할 테니, 그거(평가 범주)에서 좀 이런 수치 해 주시면 될 것 같다”라고 말했다. 여 전무 발언 이후 회의는 끝났다. 이후 승인 보류됐던 국가대표 선수들은 모두 진천선수촌에 입촌한 것으로 파악됐다.

진종오 의원실이 대한체조협회로부터 제출받은 ‘2025년도 제4차 여자 기계체조 경기력향상위원회 회의 참석서명부’에 따르면, 이날 회의엔 여서정의 모친이자 여홍철 전무 배우자인 김 아무개 대한체조협회 전임 감독도 참석했다. 대한체조협회 측은 국가대표 선발 관련 내용을 논의할 때 김 전임 감독은 이석한 상태였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진다.

체조계 한 관계자는 “임기응변으로 점수만 수치화시켜 제출하자는 것은 기존 선발 명단을 유지하기 위한 ‘사후 점수 조작’”이라면서 “더구나 여홍철 전무는 경기력향상위원회 소속이 아닌데, 회의를 완전히 주도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이해충돌을 넘어 직권남용에도 해당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은 “국가대표 선발전 이후 ‘임기응변’으로 평가점수를 수치화해 제출했다는 정황이 사실이라면, 이는 선발 절차의 공정성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면서 “경기력향상위원회 위원이 아닌 집행부 임원이 회의에 참석해 논의를 주도하고, 이해관계가 있는 사안에 관여했다는 의혹 역시 명확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01

진 의원은 국가대표 선발 명단 승인 권한이 있는 대한체육회와 관련해 “대한체육회가 (이해충돌 관련)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은 반드시 필요한 조치였지만, 지나치게 늦었다”면서 “국가대표 선발 명단 승인 보류 이후 다시 승인을 결정한 과정이 적절했는지 재확인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이번 사안은 관련 기관 모두의 책임 아래 철저한 사실 규명과 재발 방지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요신문은 ‘국가대표 선발 평가점수 사후 조작 정황’ 관련 질의를 목적으로 여홍철 대한체조협회 전무에게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다. 여 전무는 연락에 응하지 않았다.

역대급 내부총질에 만신창이...자이언츠 야구단이 잃은 5가지

일간스포츠 안희수 기자

2026. 2. 16. 10:46

사진=일간스포츠

온 가족이 모여 차기 시즌 KBO리그 판도를 두고 얘기를 나눠야 할 명절. 롯데 자이언츠발 '도박 파문'이 야구팬에게 피로감을 주고 있다. 대만(타이난) 1차 스프링캠프에 참가한 김동혁·나승엽·고승민·김세민이 불법 도박장에 출입해 귀국 조치를 당한 것. 구단은 사태가 드러난 13일 이들을 KBO 클린베이스볼센터에 신고했고,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내릴 것"이라고 예고했다.

대만 현지인이 네 선수가 있는 해당 업장 CCTV 영상을 소셜미디어(SNS)에 올렸고, 국내 야구 커뮤니티를 통해 확산되며 논란이 불거졌다. 구체적인 상황은 조사에 의해 더 밝혀지겠지만, 다음 시즌을 준비하는 시점에 나온 이번 도박 파문은 그 여파가 좀처럼 가시지 않을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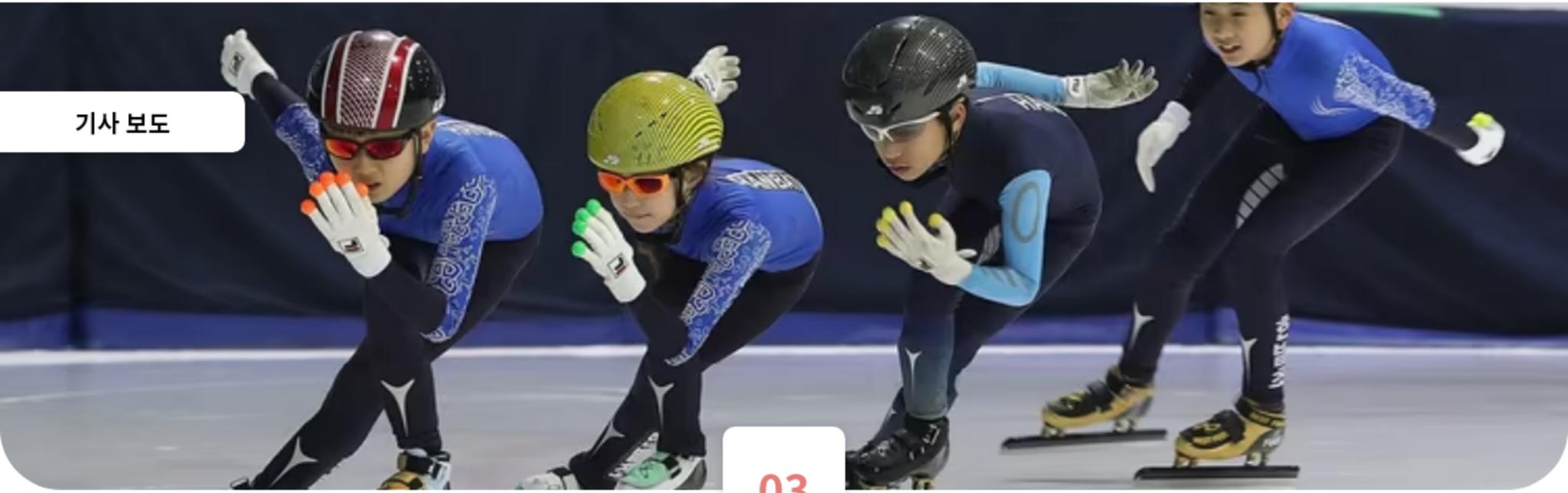
롯데는 잃은 게 많다. 일단 해당 선수들은 중징계가 불가피해 보인다. 불법 업장 인지 여부가 면책이 되긴 어려워 보인다. 나승엽과 고승민은 각각 주전 1루수·2루수 1순위 후보였다. 롯데는 박준혁 단장이 부임한 직후 드러난 소속 선수 배영빈의 음주 운전 사실에 '방출'이라는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이번에도 KBO 클린베이스볼센터가 내린 징계보다 더 큰 '철퇴'를 가할 가능성이 높다. 나승엽과 고승민은 2024시즌 팀 야수진 세대교체를 이끈 주역이다.

전력 약화는 롯데가 감당해야 할 사후 수습 중 가장 작은 부분이다. 롯데는 야구팬 신뢰를 잃었다. 이미 비활동기간마다 소속 선수의 크고 작은 일탈과 개인사 논란으로 큰 실망감을 안긴 바 있다. 롯데는 최근 8년(2018~2025) 연속 포스트시즌(PS) 진출에 실패하며 창단 최장 암흑기에 빠져 있다. 희망가를 부르는 스프링캠프 기간이기에 '한 번 더 믿어 본다'라는 마음으로 선수들이 드러내는 자신감·각오에 웃음 짓는 롯데팬이 많았다. 이번 도박 파문으로 배신감은 그 어느 때보다 커졌다.

롯데 야구단 내 조직 기강 해이, 선수단 관리 실체가 드러난 점에서 그 타격이 더 클 것 같다. 김동혁·나승엽·고승민·김세민의 모습이 유출된 시간은 새벽 2시로 알려졌다. 12일은 4번째 턴(4일 훈련·1일 휴식)이 끝난 휴식일이었다. 아무리 '자유 시간'이 부여됐다고 하더라도, 새벽 2시에 숙소 밖에 있었던 건 일반적이지 않다. 이상 징후를 감지하지 못했다는 것만으로 프런트와 코칭스태프의 관리 역량이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KBO는 10개 구단 스프링캠프 출발에 앞서 품위손상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고, 특히 늦은 시간 카지노·파친코 출입이나 음주 행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바 있다.

모기업 신뢰도 잃었다. 김동혁·나승엽·고승민·김세민이 일탈 행위가 드러난 13일은 2026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에서 고교생 최가온(롯데스키앤스노보드팀)이 스노보드 여자 하프파이프 종목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날이었다. 스키·스노보드 종목을 장기간 후원해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키다리 아저씨' 역으로 부상해 박수를 받고 있었던 상황이었다. 하지만 반나절도 지나지 않아 야구단에서 미담들을 뒤덮는 '내부총질'을 하고 말았다.

국제적으로 망신을 당한 점도 롯데 야구단에 치명적으로 작용할 것 같다. 사태가 불거진 뒤 대만·일본 매체에서도 관련 내용을 다뤘다. 야구 커뮤니티도 들끓었다. 특히 자이언츠는 일본 프로야구(NPB) 구단 지바 롯데와 자매 구단이다. 소속 선수들을 일본 소재 아카데미에 자주 파견한다. 이런 행보에도 제동이 걸릴 수 있다. 감독·코치도 없는 해외에서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03

선수도, 시설도 부족…대전 동계체육 구조적 한계 드러나

뉴스1 김기태 기자

2026.02.15. 06:00

사진=뉴스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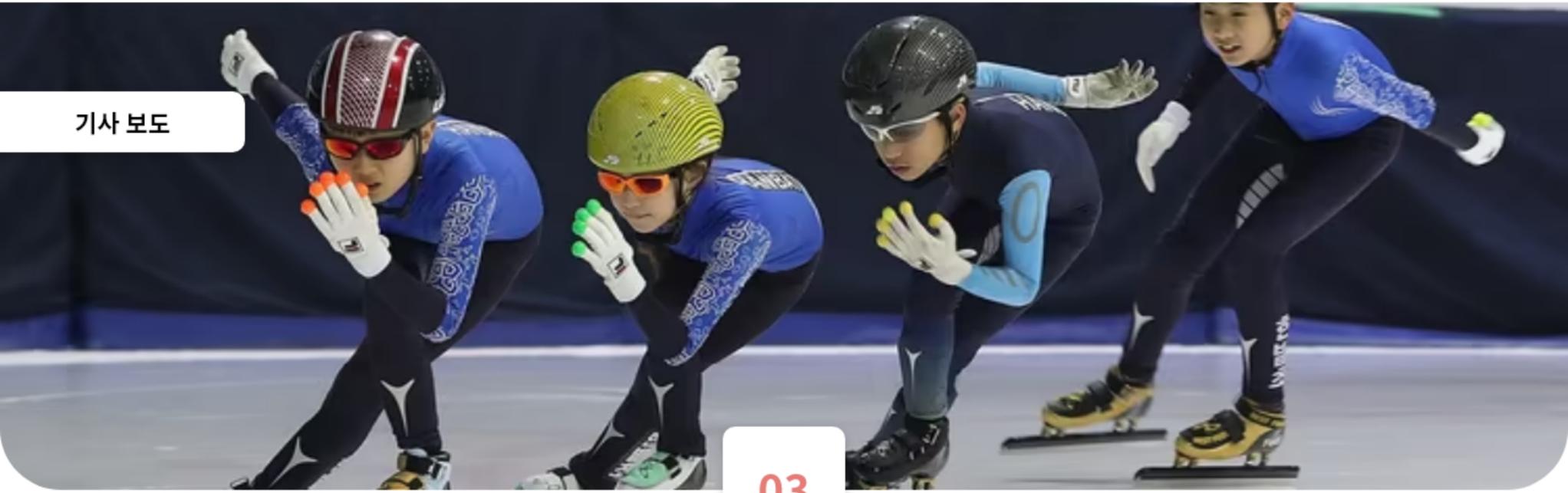
이탈리아에서 울려 퍼지는 대한민국 선수들의 메달 소식과 달리, 대전 동계체육의 현주소는 여전히 ‘인프라 갈증’ 속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다.

2026 제25회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에 대한민국은 선수 71명을 포함한 130명 규모의 대표단을 파견해 금메달 3개 이상, 종합순위 10위 이내 진입을 목표로 내걸었다. 세계 무대에서 선전이 이어지고 있지만, 이번 대표단 명단에 대전 출신 선수는 단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다.

지역 체육계는 이를 단순한 ‘이번 대회 부재’가 아닌 구조적 문제로 바라본다. 한 관계자는 “올림픽에 도전할 수준의 엘리트 선수층이 지역에 남아 있지 않다”며 “초등부 이후 상급 학교로 이어지는 육성 체계가 취약해 유망주들이 타 시도로 빠져나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빙상계는 부진의 가장 큰 원인으로 열악한 시설 여건을 꼽는다. 대전에서 국제규격 (60m×30m)을 갖춘 빙상장은 서구 탄방동 남선공원종합체육관 내 빙상장이 유일하다. 그러나 관중석과 부대시설이 부족해 전국 규모 대회를 개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다.

이 시설은 2002년 서구청이 건립해 현재 민간 위탁 운영 중이다. 빙상장은 냉동·제빙 설비 유지에 막대한 비용이 드는 특수 시설이어서 자치구 단위 운영에는 재정적 부담이 크다는 설명이다. 서구청 관계자는 “빙상장은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시설로 자치구 차원에서 감당하기 쉽지 않다”며 “광역 단위 체육 인프라는 시가 책임지고 관리·운영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전시체육회 빙상경기연맹 한 임원도 “남선빙상장은 규모와 시설이 열악해 쇼트트랙 전국 대회는 물론 동호인 대회 개최도 쉽지 않다”며 “전국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전용 빙상장 건립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훈련 환경 역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빙상장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일반 시민에게 개방된다. 선수 훈련 시간은 오전 8시부터 10시까지 하루 2시간에 불과하다. 이 시간마저 쇼트트랙과 피겨, 일반·동호인·엘리트 선수들이 나눠 사용해야 한다. 오후 8시 이후에는 아이스하키 선수단이 이용한다.

경제적 부담도 적지 않다. 남선빙상장 1시간 대여료는 13만 원 수준으로, 휴일을 제외하고도 한 달 훈련 비용이 수백만 원에 달한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이 때문에 일부 선수들은 과천이나 아산 등 타지역으로 원정 훈련을 떠나고 있다. 이동 시간과 비용 부담이 커지면서 중도에 운동을 포기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선수 육성 기반도 취약하다. 현재 대전에서 빙상부를 운영하는 학교는 한밭초등학교가 유일하며, 고등부 빙상팀은 전무하다. 초등학교 이후 진로가 막히다 보니 유망주들이 수도권으로 전학을 선택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이는 곧 지역 엘리트 선수층의 붕괴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 같은 구조적 한계는 전국동계체육대회 성적에서도 드러난다. 대전선수단은 2025년 제106회 전국동계체육대회에서 금 1개, 은 1개로 종합 14위를 기록했다. 최근 수년간 12~15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일부 메달은 단독 출전 종목에서 나왔다.

대전시는 2026년 전국동계체전에 빙상 22명(선수 16·임원 6), 아이스하키 22명(선수 18·임원 4), 스키 11명(선수 7·임원 4), 컬링 14명(선수 10·임원 4), 산악 7명(선수 3·임원 4) 등 5개 종목 97명이 출전할 예정이다. 그러나 지역 체육계는 “단순한 참가 인원 확대보다 중요한 것은 경쟁력 있는 선수층을 얼마나 두텁게 만들 수 있느냐”라고 지적한다.

전문가들은 단순한 시설 개·보수를 넘어 전국·국제대회 유치가 가능한 전용 경기장 신설, 초·중·고 연계 육성 시스템 구축, 안정적인 훈련비 지원과 장기 발전 계획 수립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DDP 해체하고 ‘서울 돔’ 건설해야”…동대문 문화·체육 기능 복원 주장 제기

한국생활체육뉴스 김성진 기자

026.02.10.12:01

사진=한국생활체육뉴스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를 해체하고, 해당 부지에 대규모 복합 체육·문화시설인 ‘서울 돔’을 건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함께하는 스포츠포럼 김택천 이사장은 최근 발표한 정책 제언을 통해 “동대문운동장 철거 이후 서울 도심의 생활형 문화·체육 기능이 단절됐다”며 “DDP 해체를 포함한 전면 재구성을 이제는 실행 의제로 올려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동대문운동장은 단순한 노후 체육시설이 아니라 수십 년간 시민의 스포츠 관람, 생활체육, 대중문화가 축적된 공간이었다”며 “반복적인 방문과 경험이 쌓이며 도시 문화가 형성됐던 대표적인 장소”라고 평가했다.

동대문운동장은 1925년 건립돼 프로야구, 축구, 각종 전국대회와 시민 체육행사가 열리던 서울의 대표 체육시설이었으나, 2008년 철거됐다. 이후 해당 부지에는 2014년 DDP가 개관해 전시·패션·디자인 중심의 문화공간으로 운영되고 있다.

김 이사장은 DDP에 대해 “건축적 상징성과 관광 자원으로서의 역할은 인정한다”면서도 “행사 중심의 이용 구조로 인해 시민 일상 속에 깊이 뿌리내리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도시를 움직이는 핵심은 방문객 수가 아니라 상시적으로 공간을 사용하는 생활자 수”라며 “체육과 대중문화라는 동대문 고유의 기능이 계승되지 못한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김 이사장은 DDP 부지에 ‘서울 돔’ 건설을 제안했다.



서울 돔은 △평일에는 시민 체육·학교 경기·지역 스포츠 대회 △주말에는 프로 스포츠와 대중 공연 △계절별 국제 행사와 도시 축제를 수용하는 복합 시설로 구상돼 있다. 그는 “스포츠와 공연, 축제가 결합된 구조는 세대 통합, 야간 경제 활성화, 관광 수요 창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중요한 것은 또 하나의 대형 건물이 아니라, 시민이 반복적으로 찾고 추억을 축적할 수 있는 생활형 문화 엔진을 만드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동대문 일대 상권과 일자리, 지역 공동체가 함께 회복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이사장은 최근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제기된 전현희 서울시장 후보의 ‘DDP 해체 검토’ 공약과 관련해 “단순한 찬반 논쟁이 아니라 서울의 문화적 정체성과 미래 경쟁력을 어디서부터 재설계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도시의 중심은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라며 “서울이 글로벌 문화 도시로 지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화려한 전시 행정보다 시민 삶 속에서 작동하는 체육과 문화의 복원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포츠 최고 법정마저 "우크라이나 추모, 올림픽에선 안돼"

뉴스1 윤주영 기자

2026.02.14.10:25

사진=AFP=뉴스1

국제 스포츠 최고 중재 기구마저 올림픽 무대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간접적으로라도 비판하는 행위가 부적절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14일(한국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스포츠 중재 재판소(CAS)는 우크라이나 스켈레톤 선수 블라디슬라브 헤라스케비치가 제기한 실격 처분 관련 항소를 기각했다.

헤라스케비치는 2022년 러시아 침공으로 숨진 우크라이나 선수들의 사진이 새겨진 헬멧을 썼다가 실격 처리됐다. 헬멧을 벗으라는 요구를 거부하며 13일간 출전이 금지됐다.

전쟁 희생자를 향한 추모와 연대 목적으로 헬멧을 썼다는 게 그의 설명이지만, 국제올림픽 위원회(IOC)는 이를 정치적 구호로 받아들였다. 올림픽 헌장 제50조 2항은 "어떠한 종류의 시위나 정치적, 종교적, 인종적 선언은 올림픽 경기장과 시설, 기타 지역에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마티외 리브 CAS 사무총장은 "물론 표현의 자유는 올림픽에서도 보장되지만, 경기장은 예외다. 이는 신성한 원칙"이라고 일축했다.

사건 심리를 중재한 독일인 아네트 롬바흐는 "전쟁으로 인해 우크라이나 국민과 선수들이 겪은 아픔은 이해한다. 이를 알리려는 선수의 뜻에도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도 "해당 헬멧이 IOC의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건 사실"이라고 결론 내렸다.

헤라스케비치는 "차별적인 결정"이라며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란다. 나는 결백하다"고 즉각 반발했다. 이후 독일 뮌헨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만난 그는 실격 처분이 좌절스럽다고 호소했다.

추모 목적의 헬멧을 쓰는 시도는 헤라스케비치 뿐만이 아니다. 우크라이나 쇼트트랙 대표 올레흐 한데이는 "영웅주의가 있는 곳에는 최종 패배란 없다"는 문장이 새겨진 헬멧을 쓰려 했으나 좌절됐다. 우크라이나 프리스타일 스키 카테리나 코차르 역시 "우크라이나인처럼 용감하라"는 문구의 헬멧을 경기에서 착용하려 했으나 IOC 판단에 따라 중단했다.

다만 러시아를 향한 국제 사회의 비판이 거센 만큼, 이를 무작정 금지하는 것은 IOC로서도 정치적 부담이 크다. IOC는 훈련 주행과 언론 인터뷰 때는 추모 헬멧을 허용하겠다는 타협안을 내놓기도 했다. 또 경기 중에는 추모를 표현하는 검은 완장을 착용하라고도 제안했다.

하지만 헤라스케비치는 이를 거부했다. 커스티 코번트리 IOC 위원장이 13일 몸소 헤라스케비치를 만나기도 했지만, 설득에는 실패했다.

코번트리 위원장은 "그에게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하는 자리였다"며 "규정은 규정대로 적용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우크라이나 정부는 헤라스케비치 선수의 애국심을 높이 사 훈장을 수여하겠다는 방침이다.



체육 시민연대 온라인 정기 후원 안내

여러분의 후원이 건강한 스포츠 사회를 만듭니다

‘귀하를 체육시민연대 회원으로 모십니다’

체육시민연대는 우리 사회의 변화를 위해 실천합니다
스포츠인권과평화, 공정하고 투명한 스포츠 문화를 함께 만들어갑니다

체육시민연대는
기부금대상비영리민간단체로 시민들의 후원에 의해 운영됩니다

*후원: 국민은행086601-04-095940, 체육시민연대

연말 기부금 영수증 발급

온라인 정기 후원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https://www.sportscm.org/%ED%9B%84%EC%9B%90%ED%95%98%EA%B8%B0>